

현대 실내디자인의 하이브리드 미학적 표현기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 of Hybrid Aesthetics in Contemporary Interior Design

김은지* / Kim, Eun-Ji
이정욱** / Lee, Jeong-Wook

Abstract

In contemporary interior design, hybrid form causes cognitive turnovers of aesthetics. Especially it offers much possibility to expression techniques in interior design and works as compound system, symbolic aggregate that makes and expands various meanings. The aesthetic ideology of hybrid design can be interpreted through the philosophic concept of art, sublime, reception, representation and explains expression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 in interior design through various transformation and meaning conversion.

The expression technique that is a form of openness, transcendental interpretation that exceed a duplicate of meaning. can be classified as oxymoron, defamiliarization and interface. The characteristic that is based on those expressions appears as use of complex codes of visual images, decoding strategy, intertextuality of meaning.

This research attitude can explain the thinking method of interior design by defining the epistemological scheme that is basically involved in expressional styles with characteristics of hybrid aesthetic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the object of aesthetics, hybrid has to be approached by interpretational methods of expression techniques. Consequently the characters of expression techniques in hybrid design can be investigated as one of the methodology in interior design plan.

키워드 : 열린 해석체, 복합적 코드, 탈코드화, 상호텍스트성, 숭고, 수용, 재현, 인식론적 체계

Keywords : The form of openness, Complex coding, Decoding, Intertextuality, Sublime, Reception, Representation, Epistemological schem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하이브리드(Hybrid)¹⁾는 현대사회를 설명하는 필수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서 전혀 새로운 묘미를 만들어내는 ‘혼성체’야말로 도전의식과 새로움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의 발동이 각광받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예술분야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형식은 미적 판단의 인식 전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실내디자인의 표현기법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으며 의미 확장체계로서 다양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기호의 집합체인 복수적 체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복합체인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미적

이데올로기를 예술철학적 측면에서의 미학적 관점과 연계하여 그것의 표현기법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의 미학적 표현기법을 통한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규명하는 것으로서,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내포하는 의미 생산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인식론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각적인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미학적 본질에 접근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은 결국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복합적인 코드를 분석하고 그것의 탈코드화의 전략과 상호텍스트적인 미작용을 밝혀내기 위함인 것이다.

* 정희원,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 부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정교수

1)복합적인 문화의 혼용과 장르의 파괴를 통한 문화의 확장성과 침투성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경계의 해체와 미학적 대중주의의 발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출발은 더 이상 창조성이란 것이 무의미해진 현대사회의 총체적 재창조로서, 일종의 순환적 과정에 의한 혼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하이브리드 미학적 흐름인 열림의 예술적 속성에서부터 야기된 인문·사회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밝힌 뒤, 인식체계의 전환과 예술철학적 개념의 디자인적 적용이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기법을 도출해내는지를 밝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의 복잡성·다양성·혼란성·애매성을 제(諸)특성으로 하는 자유로운 표현기법에 대해 그것의 새로움을 적절히 설명해줄 이론적 준거 틀로서 예술철학적 개념 - 숭고, 수용, 재현 -에 입각해서 의사소통의 무한성 또는 불확정성과 형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규범적인 형태를 탈피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을 삼는다. 즉 '미'라는 대상에 대한 해석적인 접근은 과학적 인식론보다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한다는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미학에 대한 디자인적 표현기법과 특성을 도출해야만 하는 것이다.²⁾ 한편 사례 선정의 범위는 주로 1990년대 이후 현대 실내디자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다만 하이브리드 미학을 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위의 한계는 20세기 전반 예술사적으로 주요 의미를 갖는 작품을 대상으로 확장하기로 한다.

2. 하이브리드의 미학적 개념에 대한 고찰

2.1. '포스트(post-)'이론의 패러다임

현실에 대한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개념들은 지식, 경험, 실천의 형태들 사이를 분간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서로 다른 이론들과 실천들 사이를 불명확하게 하고 병치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포스트-'이론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대 사회의 변화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포스트 이론들을 고찰하는 것은 하이브리드의 특성이 포스트 이론들의 많은 이론적 특성과 유사, 혹은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에서 지난 20세기 후반은 아마도 포스트의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주 회자되어온 포스트란 접두어가 붙은 여러 이즘(-ism)들을 열거해보면 Post-Modernism(탈/후기 모던), Post-Structuralism(탈/후기 구조주의), Post-Feminism(탈/후기 여성주의), Post-Colonialism(탈/후기 식민주의), Post-Humanism(탈/후기 인본주의) 등으로 나타난

다. 우선, 위의 단어들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접두어 '포스트-'를 '후기(後期)'로 볼 것인지 '탈(脫)'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것이 지향하는 의미는 달라진다. 즉 '포스트' 뒤에 붙는 원래 용어가 가리키는 현상과의 연속성을 강조할 때는 '후기'로, 연속성보다는 새로움,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이전의 '-이즘'을 극복하는 지점을 부각하려면 '탈'로 번역된다. 그러나 '후기'나 '탈' 중 하나로만 번역하면 원래 이 단어가 지닌 이중적 의미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오타르(J. F. Lyotard)는 포스트를 '전향(conversion)', 즉 이전의 것을 다음의 새로운 방향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던적인 사유방식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의 의미는 컴백(come back), 피드백(feed back), 플래쉬 백(flash back)의 운동, 즉 반복(repetition)운동이 아니라 분석(analyse), 상기(anamnèse), 해석(anagogie), 변형(anamorphose)에 있어 원초적 망각을 의미하는 '아나(ana-)'과정이라고 말한다.⁴⁾ 이처럼 포스트는 '이후(après)'가 아니라 '다시(re)'를 의미하며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사유, 언표행위 및 감수성의 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포스트 이론들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가시화시키고, 새로운 관념을 창안해내며, 그리고 새로운 예술규칙을 발견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스트 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실내디자인의 하이브리드적 양상을 보았을 때,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조합, 병치, 중첩시킴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름, 불일치, 모순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디자인 형태는 이종(異種)적인 성질인 유추나 재현을 이용하게 되고 절충적 혹은 난해하게 분절된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⁵⁾

2.2. 차이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a)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은 경계의 모호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새로움, 혹은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틀로써 인식해야 한다. 또한 주체적 설정의 파괴와 서양철학의 중심적 사고 -영속성과 항속성, 불변성, 기초, 근본- 등과 이별해야 하며 반대로 변이와 창조, 그리고 진화와 같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미학의 주체성 확립에 관한 포스트 이론들의 '주체성' 해체는 철학에서 '인식'의 주체를 예술에서는 '미적' 주체를 해체시켰고 진리의 생산은 '주체'의 산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인의 탈중심화된 사고를 보여주는 푸코(M. Foucault)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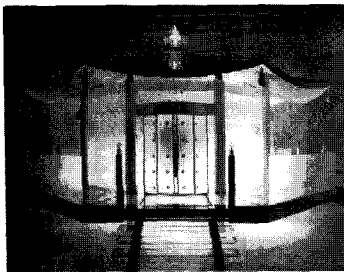
2)미학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이념으로서 추구되는 미가 아니라 시대에 따른 '해석'과 '이해'의 문제로서, 인간에게 무한히 확장된 의미로 다가온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미학의 근본적인 의도는 새로운 맥락을 창출하여 열린 해석을 유발하는 것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김은지·이정옥, 혼성 디자인의 의미구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 15권 2호, 통권55호, 2006 참고

3)모던이라는 개념 자체는 전통과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유방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리오타르는 전통과의 단절이 오히려 과거를 망각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아닌지 혹은 과거를 넘어서기 보다는 단지 그것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4)J. F. Lyotard,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문예출판사, 1993, p.68

5)Charles A. Jencks, Heteropolis, AD, 1993, pp.24~34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가능하게 하고 동일성에 바탕을 둔 사유의 모델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헤테로토피아'⁶⁾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용어는 한마디로 불연속적이고 이질적인 사유체계를 정의한 것이다. 이 개념을 통해 푸코는 이미 사회적 제도로서 확립된 기존의 배치와는 다른 배치들, 즉 기존 질서의 외부에 있는 대항(對抗) 배치들이 사회적 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인식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는 단순히 물리적인 외부공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공간은 푸코의 '바깥의 사유'를 공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리오 모리(M. Mori)의 『꿈의 사원』은 전통적 종교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래의 공상과학이 만나 가상의 명상을 연출하는 가상의 건축이다. 그것은 의미로부터 분리되어 표류하는 환상의 공간, 그런 의미에서 텅 빈 공간인



<그림 1> Mariko Mori, Dream Temple, 1999

셈이다. 즉 작가는 푸코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간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현실을 말하는 또 다른 현실, 곧 헤테로토피아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헤테로토피아는 위기와 일탈의 공간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유동적인 공간인 셈이다.

이처럼 헤테로토피아는 동일성과 일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이질적인 항들과 관계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차이와 일탈, 대항과 전복(顛覆)의 공간인 것이다. 결국 어느 곳도 아닌 장소로서의 <Nowhere>, 여기서 no는 부정이나 대립이 아니라 선행하는 모델이나 유사물을 가지지 않은 어떤 우연성의 긍정을 통해 다가온다. 한 마디로 헤테로토피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단일한 형태로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하이브리드적 사유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대성, 근원성, 체계성, 중심성을 해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2.3. 하이브리드 미학 : 경계의 소멸과 '열림'의 가능성

역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직선적으로 독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유형이 교체되어가는 프로세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고의 관점이 대상에서 관계들로, 더 나아가서는

관계들의 차이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근원적으로 예술은 풍부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띤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의 내리기 어려운 현대라는 의미 속에서 예술의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열린 의미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한 전체를 분석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닌 복잡한 상태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브리드 역시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전체의 틀 속에서 그 본연의 속성은 유지하면서도 전체의 통일성은 교란시키지 않도록 연속된 체계 속에 응집시키는 새로운 디자인 논리로서 하이브리드 미학적 특성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서로 간의 '경계 허물기'⁷⁾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완전 탈피한 것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물리적 경계와 시간적 억압을 해소시킨다. 그리고 이질적 요소들이 하나의 실체로 통합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융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상호소통의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공간에 있어 경계는 그 공간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며 서로 다른 공간 사이에서 관계 맺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인간은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시각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정신적 체험(virtual reality)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계는 단지 내·외부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형을 통하여 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계 허물기와 또 다른 경계 쌓기의 순환적인 문화구조는 포스트 이론들의 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성격은 복합성과 모순성을 바탕으로 하는 애매모호성이 단순성, 순수성, 합리성을 대체하는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⁸⁾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 포섭과 배제의 선을 긋고 있는 경계의 구분이 '이성'이란 잣대를 통해 하이브리드 미학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과 非이성을 미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관주의 미학보다는 주관주의 미학에 더욱더 중점적인 관심을 가중시킨다. 이때 두 에피스테메(episteme)의 관계성 파악⁹⁾은 분명 현존하는 서구적 이성의 지배를 균열시키고 뒤흔들려는 비판적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 이성이라는 권위주의가 광기를 억압하는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6) 헤테로토피아는 어의적인 의미로 사물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중첩되거나 위치하고 있어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되는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푸코의 저서 「말과 사물」의 서론에서 보르게스(Borges)의 소설에 나오는 '중국의 어떤 백과사전'에서 전 세계의 동물들을 범주화하면서 처음으로 제시된다. M.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말과 사물, 이광래 역, 1986, p.11참고

7) '경계 허물기'란 미술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양식의 충돌 및 혼성, 그리고 질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매체의 대두와 新매체의 대중적 확산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정 현, 경계의 미학-모호함으로 풀어보는 현대 미술, 프랑스학 연구, vol 21, 2001, pp.450~452

8) John A. Walker,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매스미디어와 미술, 장선영 역, 시각과 언어, 1998, p.140

9) 미적 체험이 예술작품 형식에 내재된 것인지(객관주의 미학), 아니면 인간 심리에 내재한 속성의 결과(주관주의 미학)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미적 현상 이면에는 단 하나의 미적 본질이 있다고 여겼던 객관주의 미학의 시도를 현대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따라 미와 예술에 대한 정의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의 지배구조를 폭로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고전예술에서의 이성적인 진리미학이 현대 예술에 와서는 장식적인 형식미학으로 변용되는 것을 지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돌발적이며 아나키스트적인 경향을 보이는 하이브리드 미학은 아방가르드적이며 새로운 기법과 재료에 기초하는 비정형적인 표현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 모든 것에 입각해서 하이브리드 작품들은 이전까지는 보기 힘들었던 강도(強度)의 열림¹¹⁾을 지향하게 되었고 대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의적인 해석에 직면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융합적 모순 및 지양성과 동시에 그것이 나름대로 갖는 일관성에 대한 유형학적 및 심층적 탐구가 필요하며 그런 작품에 있어서 해석의 문제를 일종의 과정(process)으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미학적 표현 기법

3.1. 하이브리드 미학에 따른 열림의 형식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시각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해석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의 새로움을 적절히 설명해줄 이론적 틀이 미학에는 아직 없다. 하지만 무질서와 부조화, 무형식과 불명료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숭고의 미학과 작품의 해석과 방법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용미학적 태도 및 재현의 형식을 하이브리드 사유체계에 적용시켜 그 타당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창조성에 기초가 된 열림의 형식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분석 방법은 수신자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확정하는 하나의 해석 과정으로서,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만 한다.

(1) '숭고'의 미학적 원리

아도르노(T. W. Adorno)는 “예술에 관한 한 이체는 아무것도 자명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라고 말한다.¹²⁾ 이

10) 푸코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지배 권력이 만들어 놓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의지하고 그 존재를 믿는 것의 절대적 근원 역시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근원과 진실에 대한 향수보다는 니체 식의 비이성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인식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곧 고정되고 절대적이고 일원적인 종래의 사고를 버리고 유동적이고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진경, 철학과 굴뚝 청소부, 그린비, 2002, pp.333~351

11)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념 중 하나인 ‘열림’은 모든 분야에서 열려있는 자세가 실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에서 결여되고 부족한 것에 대한 역설적 갈망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김용석,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푸른숲, 2000, p.36

12) T. W. Adorno, Ästhetische Theorie, 미학이론, 홍승용 역, 문학과 지성사, 1993, p.11

말은 전통적으로 긍정과 일치로 이해되어져 왔던 미의 이념을 의문시하는 것으로, 현대 예술의 상황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숭고(sublime)’¹³⁾의 미학에 접근하게 만든 단초(端初)가 된다. 이처럼 현대 예술에서 숭고의 이념이 부활하게 된 것은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logocentrism)’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반감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서구 미학사에서 미의 범주는 로고스와 존재, 질서와 일치 등과 같은 아폴론(Apollón)적 원리에 의존해 왔다. 그 반면에 숭고의 범주는 파토스(pathos)와 생성, 무질서와 불일치 등과 같은 디오니소스(Dionysos)적 원리를 대변해왔다.¹⁴⁾ 이것은 근대미학의 인식론적 원리인 리얼리즘과 재현의 이념이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형상과 개념이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서로 뒤섞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리오타르가 주장하듯이 ‘새로운 것(the new)’과 ‘지금(the now)’의 혼동, 혹은 ‘혁신(innovation)과 사건(happening)’이라는 순간적인 시간, 사건으로서의 예술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관점이 회화에서는 비결정성의 ‘사건성’으로 파악되어 숭고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성, 즉 비결정성은 작가에 의해 예술 작품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를 향해 무한히 개방된 의미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열린 해석을 시사한다. 그러한 예로 바넷 뉴먼(B. Newman)의 회화는 아름다움보다는 신비로운 숭고함을 표현하는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그림 2>에서처럼 색면을 통해 신성한 정신성을 추구하여 자연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추상적 형태나 무의식의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의 사건성을 중시한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처럼 숭고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개념 및 표현양식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무형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형식주의를 탈피하는 것으로서 형식이 없어지고 남는 것은 오직 질료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질료는 다양하고, 불안정하며 순간적인 것으로서 건축적인 표현기법은 불확정적이고 비결정적인 모호한 형태로 나타



<그림 2> Barnett Newman, Now II, 1967

13) 숭고의 개념은 고대 수사학자인 롱기누스(D. Longinus)에 의해 처음 미학의 역사에 등장한다. 문화적으로는 버크(E. Burke)와 칸트(I. Kant)의 이론이 구현하고 있는 근대정신의 산물이다. 오랫동안 미학의 관심 영역 밖에 머물다가 엄밀한 객관주의에 토대를 두었던 고전적인 미의 개념에 반발한 18세기 근대미학의 요청에 의해 낭만주의의 새로운 미적 범주로 자리잡았고 최근에는 포스트모던한 감수성의 문제와 관련해 다시금 광범위한 관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름다움이 조화와 질서, 균제, 정형과 연관된다면 숭고는 부조화와 부정형, 혼돈 또는 파격과 연관된다.

14) 안성찬, 숭고의 미학 : 그 기원과 개념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pp.135~137

15) 진중권, 현대 미학 강의, 아트북스, 2003, p.249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송고 미학적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사유체계를 보았을 때, 탈관습적이고 다의적인 기호로서 열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예술적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이브리드 디자인에서는 이렇다 할 해석의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코드(양식)에 따라 메시지(작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송고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예술의 커뮤니케이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수용'의 해석적 원리

역사적으로 건축을 포함한 예술 작품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별로 작품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이 그에 적합한 새로운 중심 개념을 생산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하이브리드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열린 개념의 미학적 가치를 확보하는 데에는 작가-작품(텍스트)-독자 사이의 조율, 다시 말해 이와 같은 삼각관계 속에서 내포된 또 다른 의미해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미학'¹⁶⁾적 해석 방법은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작품을 통해 작품에 전제되어 있는 중심 개념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실내디자인 발전에 있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 여러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건축적 담론과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만의 이론을 통해 작품의 해석과 디자인 접근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한 쉬름벡(E. Schirmbeck)은 60년대 이후 현대 건축에서 발견되는 디자인 개념과 원리가 모더니즘의 합리적인 원리에서 '상징적', '심리적'인 원리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츠뭉미(B. Tschumi)는 최근의 건축적 담론이 이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각 주체의 공간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의들은 결국 디자이너의 작품이 작가 혼자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그것을 느끼고 상상하는 주체들과 연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불어 수용미학적 해석은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파악되는가'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태도는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생산'에서

'수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점에서 수용미학적 접근 태도는 작품에 담긴 '효과구조'와 그것을 경험하는 수용자의 '경험구조' 상호 간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미학의 본질과 목적은 수용자를 축으로 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⁷⁾

한편 실내디자인은 형태적 구성요소들로 짜여진 텍스트로서, 그것의 서술방식은 언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은 통상적인 구문법에 충실해왔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디자인에서는 구성요소들의 결합방식이 순차적인 구문법을 역행(혹은 무시)하는 치환이나 병치적인 조합 등의 화용론적 문법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더욱이 예상을 뒤엎는 방식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변형의 방법을 통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의미론을 생성해내기에 이른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텍스트는 항상 변위(變位)를 일으킴으로써 대상을 새롭게 읽히고 지각하게 만든다. 결국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그것을 해석하는 수신자에게 다양한 의미의 층위(層位)로 열려져 있는 것이다.

(3) '재현'의 형태적 원리

예술 작품의 텍스트 자체는 닫혀 있어 누구도 변경할 수 없지만, 그 완결된 텍스트에서 저마다 다양한 의미를 끄집어낸다. 이것은 작품의 해석이 계속해서 열려져 있고 작품이 가진 '근원적' 의미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작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역사)의 시·공간적 간극을 뛰어넘어야 한다. 언어에서도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언어적 상황 속에서 그 말의 쓰임새(용법)에 따라 달라지듯이 예술에서도 질료에 따라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사실 예술철학에서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¹⁸⁾에 대한 번역어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현이란 사물의 외관을 그대로 본뜨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적이며 의미 있는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술적 재현이란 진리, 즉 사물의 은폐된 참모습의 재현인 것이다. 재현이란 말 그대로 다시 나타남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의 의미를 갖는 're'라는 접두어로, 무언가를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관찰하는 외부의 세계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을 거쳐 다시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재현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인 것이다. 즉 모든 재현의 대상물은 작가에게 내화(內化)된 이

16)수용미학(Rezeptionsästhetik)은 1960년대 말 독일 문학 이론가인 야우스(H. R. Jauss)가 주장한 문학연구의 한 방법론으로써 문학 작품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독자, 즉 수신자의 작품 체험 속에 내재해 있다고 전제하는 이론이다. 수용미학은 문학 텍스트의 자율성만을 중시한 고전 미학의 작품 해석 태도를 비판하고 문학작품의 이해(수용)가 작가와 독자 사이에, 텍스트와 독자 간의 대화를 통한 작가-작품-독자의 삼각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pp.16~26

17)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 건축, 시공문화사, 2003, pp.22~23

18)'모방(imitation)'의 뜻을 담고 있는 미메시스는 기원전 5세기경 예술이 현실을 담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이것이 미학적 개념으로 확립된 것은 플라톤에 이르러서야 수사학·미학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후 다시 외화(外化)되는 것으로 외부의 요소는 작가의 내부에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내부에서 형성되는 대상은 외부의 요소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현은 외부의 실재를 지시대상으로 삼지만, 그것이 작가를 거치며 주관적 변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성격을 지닌다.¹⁹⁾



<그림 3> 오시히 마모루, 이노센스, 2004 - 인간과 기계가 수렴된 새로운 혼성의 실체인 사이보그(cyborg)

가상, 심지어는 원본을 지워버리는 이미지로서의 시뮬라크르(simulacre)²⁰⁾라는 개념으로 재현이 진화하게 된다. 이 같은 이론의 출현은 현대 사회를 현실과 이미지, 그리고 지시대상과 기호, 또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의 이원론적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파악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입장은 <그림 3>에서처럼 복제의 복제, 즉 '유사(resemblance)'의 진리가 아닌 '상사(similitude)'의 진리²¹⁾, 즉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할 때 얻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유사가 아닌 상사적인 차이들의 놀이는 유희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 가시성/비가시성, 장소/비장소성, 개연/우연, 감각/환각의 놀이처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표현을 통해서 가상과 현실은 서로 융합되어져 유희 자체가 되며 현실공간을 풍요롭고 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처럼 대상의 재현을 파괴하는 다양한 시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양태로까지 발전하여 현실공간의 대상체가 가상공간으로 옮겨지는, 즉 가상공간에서의 현실에 대한 재현이 일어나고 있다. 정리하면, 재현은 전통적으로 미메시스와 더불어 예술 창작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써 작용되었으나 현대 예술에서는 언어적

이러한 재현의 개념은 디자인 측면에서 창조적 작업이며 현실과는 다른 독립된 어떤 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지시대상 없는 순수한

19) 김민수, 건축에서 재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p.11

20)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한다. 이 원본 없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이 시뮬라크르는 독자적인 하나의 현실로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실재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바로 非현실이라고 하였던 시뮬라크르로부터 나오게 된다. 흉내내거나 모방할 때는 이미지란 실제 대상을 복사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제 대상이 가장된 이미지를 따라야 한다. J.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시뮬라시옹, 하태완 역, 민음사, 2001, pp.9~10

21) 푸코의 이론에서 재현은 '유사'와 '상사'로 구분되어진다. 유사는 본래적인 것, 원본의 전제하에서 그 원본과의 가까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사는 원본이 없으며 상사의 개념 안에선 각 사물들 사이의 같음과 다름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유사는 존재와 사유의 일치를 함축하지만 상사는 현대인의 탈중심화된 사고를 보여주는 사유의 개념이다.

기술처럼 대상을 만들고 연결하고 구분하며, 심지어 새로운 창조를 요구한다. 이처럼 재현은 창조이고 건축적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형태적 변이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의 예술철학적 열림의 형식에 따라 실내디자인에서의 하이브리드 미학적 표현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2. 실내디자인의 하이브리드 미학적 표현 기법

실내디자인에서의 하이브리드는 '중심'의 원리를 뒤집는 역할, 즉 고급문화의 권위와 문화적 위계질서를 깨고, 문화적 가치 판단에서 '주변'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살리며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헤아리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 모순형용적(oxymoron) 기법

실내디자인에서 숭고미를 특징짓는다면 '모순형용적 기법'을 전형적인 표현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상치(相馳)하여 상황을 강조하거나 수신자의 관심을 끄는 비유법을 말한다. 이를테면 '슬프도록 아름답다'든지 '작은 거인', '창조적 파괴' 등이 이에 속한다. 분명 슬프고 아름다운은 일치할 수 없으며 더구나 거인이 작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표현은 수신자로 하여금 현실적 정황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모순형용적인 표현은 실내디자인에서 일차적/이차적 기능과 전혀 무관한 추상·조형적 요소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모순형용적 표현기법은 무언가의 변형·축소·과장·왜곡이 우선한다는 사고의 축을 반영하면서 기억을 상대화하고 역사적인 시간을 동일시함으로써 역사를 非역사화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전체보다 부분이 우선하고 이질적인 조합이 앞서는 것으로서, 전혀 예상을 뒤엎는 의미충돌을 일으키게 한다.

<표 1> 모순형용적 표현기법의 디자인 사례

표현방식	작품	의미
과장	 P. Starck, Hotel Design / A. Kapoor, Marsysa	일상적 오브제를 과장시키는 새로운 시각적 코드를 생성하여 추상적 공간 창출
변형	 P. Novembre, Sue Café & Blumarine Store / 전시형, 궁	형태의 변형을 통한 기능적 일탈과 전이로서 이차적 기능의 상징화를 추구
왜곡	 Jacob & MacFarlane, Pompidou Restaurant / Puerta America Madrid Hotel	형태적 왜곡은 다양한 시점과 지각을 제공하여 시각적인 중첩화와 다층화를 형성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모순형용적 표현의 방법은 주로 형태적 변형과 왜곡, 그리고 과장을 통해 무질서와 부조화, 그리고 무형식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이것은 의미의 다의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앞서 말한 것처럼 송고미의 추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목적에 있다고 보았을 때 모순형용적 표현 기법은 작품을 통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일련의 예술적 담론 형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송고미의 디자인적 표현은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어떤 불변의 진리나 고정된 의미 등을 부정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수신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그 의미가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작품의 다의성이며 다의성은 독특한 하이브리드 미학적 가치를 얻게 된다.

(2)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의 기법

수용미학적 해석은 디자인의 텍스트성과 그것을 지각하여 해독하는 수신자의 중심적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낯설게 하기’²²⁾의 표현기법은 작품과 수신자의 간격을 띄어 놓음으로써 수신자가 작품 또는 작가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율적인 해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성보다는 복잡성으로, 직설적인 것보다는 모호함과 긴장된 것, 그리고 순수한 요소보다는 혼합된 요소 등의 콜라주(collage)적인 다중코드의 지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낯설게 하기가 본질적으로 내포한 부정성(Negativity)이 이질적 요소들의 병치와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내용(story)보다는 형식(plot)을 강조한 형식주의자들이 대상에 대한 평범한 지각을 새로움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사물과 이미지의 연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종의(heterogeneous)’ 추상적 분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전체적인 조화를 일탈시켜 의도적인 낯선 감각을 유도해내는 것이다. 이렇듯 고정된 의미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낯설게 하기로서의 디자인은 지각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작품 창조와 해석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낯설게 하기의 표현기법은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주요 개념인 의미의 다중성, 복잡성, 미확정성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표 2> 낯설게 하기 표현기법의 디자인 사례

표현방식	작품	의미
역설	 F. Gehry, DZ Bank / Marta Malé-Alemay & José Pedro Sousa, M-City	공간의 이중구조화로 인한 경계의 소멸은 역설적 논리로 작용
병치	 장르적·시간적·공간적 오브제화의 상징적 표현	이질적 재료와 형태, 오브제, 시간, 지역, 장르적 요소들의 혼용으로 대중화를 추구
콜라주	 Marcello Panza y Claudio Giunelli, Magritte / Jean Nouvel, The Hotel	이미지의 차용과 단편의 중첩은 공간 이미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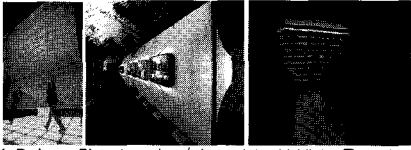


(3) 인터페이스적(interface) 기법

현대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재현은 주로 형태적 제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재현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재현은 가시적인 현상과 인식적 의미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적 구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이적 현상이 불러일으킨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간의 가상적인 개체들은 물리적 공간의 인간,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공간 모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interaction)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마련해준다.²³⁾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적 경계(solid/void, open/close)를 제시하기도 한다. 결국 인터페이스 공간적 수법은 두 경계면 사이에서 일어난 혼성적 작용으로 인하여 외부와 내부의 본질적 속성이 변화한다. 이처럼 인터페이스적 표현기법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재현에 있어서 공간이 갖고 있는 시간적·장소적·감각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다. <표 3>에서처럼 공간의 매체화와 환상적 공간화, 그리고 공감각적 공간화라는 표현방식은 공간의 고정된 물성을 해체하고 비물질화를 통해 공간감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공간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실내디자인에 있어 인터페이스적 표현기법은 실제 공간에서 장소와 비상소성을 동시에 창조하며 두 개의 경계면에서 새로이 변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접촉면(interface)이 상징적 은유의 의미생성을 유발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3)장규석, 가상공간에서의 미메시스 형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p.44

22)20세기 초 러시아 형식주의(formalism)문학가인 슈크로프스키(Viktor Shklovski)가 표방한 객관적 서술묘사의 수법 중 하나이다. 형식주의자들은 낯설게 하기를 예술의 중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작품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진정한 미적 대상으로 만들어놓음으로써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결국 형식의 파괴를 통해 독자들의 ‘낯설음’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것이며 일상적인 대상을 비일상적으로 만들고 낯익고 친숙한 대상과 사물에 대한 습관화된 지각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표 3> 인터페이스적 표현기법의 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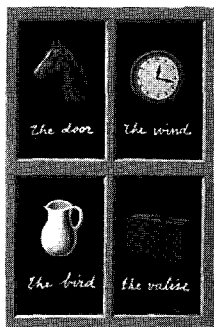
표현 방식	작품	의미
공간의 매체화	 K. Dytham, Bloomberg Ice / Asymptote, Habitats, Tectonicas, Paisajes / Jenny Holzer, Looming	공간의 고정된 물성을 해체하고 정보와 이미지를 통해서 공간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변화
환상적 공간화	 Herzog & de Meuron, Donimus Winery / James Turrell, Echigo / Karim Rashid, Biomorphc Rainbow	공간의 비물질화 경험은 공간감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구축적 한계성을 초월
공감각적 공간화	 Christian Moeller, On Air / Muli Randolph, D-Edge / Electroland, Target Interactive Breezeway	무기체인 공간이 역동성과 움직임의 유기체적인 공간으로 작용

3.3.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표현 특성

위에서 사례들의 표현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미학적 표현기법이 개념적 복잡성이 증폭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다양한 형태조작 및 의미작용의 무한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디자인적 코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디자인 전략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1)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은 현대 사회가 이미지로 소통하는 시대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연구하는 일은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 <이미지>들이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보는 것은 언어보다 선행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의 불안정한 관계를 의미하며 인식의 문제를 의미적으로도 구분론적으로도 붕괴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림 4>에서처럼



<그림 4> R. Magritte, La Clef des Songes,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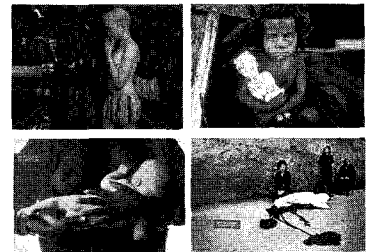
이미지와 대상 사이의 모호한 관계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그 어느 것도 현실, 즉 진리가 아님을 말한다. 시각 이미지에서 이 같은 효과는 대상의 모습을 낯설게 함으로써, 인간의 지각을 자극하고 그 결과 주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전략인 것이다.

하이브리드 디자인에서 가시적인 이

미지의 혼돈은 인식의 차원에서 가시적/비가시적, 진리/허구, 현실/가상의 혼합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인간의 욕구 자체가 만들어낸 사회문화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초월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전환의 계기는 하이브리드 사고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초월적 인식은 공간의 구문론을 붕괴시켜 가상공간의 극대화를 실현하기도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적 이미지로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적 도구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인식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바로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인간과 환경 사이의 소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실내디자인을 일차적 기능체로 보기보다는 이차적 의미체로 보려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2) 탈(脫)코드의 코드화

하이브리드 디자인에서 다양한 코드들의 결합 및 혼합 양상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에서는 새로운 기능 체계를 외시할 수 있는 시니피앙(signifiant)의 코드, 즉 기존의 건축적 코드를 어느 정도 위반함으로써 새로운 코드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 코드(분절적,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코드)의 일탈은 하이브리드 디자인에 있어서 조형화의 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탈코드의 전략은 친숙한 대상을 생경하게 함으로써 충격적인 메시지를 유발한다. 이러한 탈코드화는 예전부터 아방가르드 예술의 전형적인 표현



<그림 5> 베네통 광고 - 인식론적 하이브리드 기법에 의해 상징성과 비구문의 구조를 통한 탈코드의 코드화를 추구

방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혁명적 발상은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반미학의 전형적인 디자인

인이 좀 더 대중적이고 해학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기 위한 디자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특성이 실내디자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현대의 사상적 상황이 전체보다 부분이 우선하고,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오히려 부분간의 이질적인 조합이 앞서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새로운 코드는 경험주체의 ‘의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무엇’을 재생산해 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시각에서 볼 때, 지각된 ‘메시지(기호)’에 대하여 기호 코드체계를 이용하여 의미해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대중들은 다중적 코드의 혼합된 작품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열린 해석을 위한 준비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의미작용

하이브리드 디자인은 생산과 수용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관계가 텍스트의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라이치(V. Leitch)에 의하면 텍스트는 자율적 혹은 독자적인 대상이 아닌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로 설명한다.²⁴⁾ 이것은 현대 실내디자인의 의미적 측면에서 건축적 언어, 즉 건축 구성요소간의 관계가 일의적인 관계로부터 다의적 관계로 발전하여 건축 요소의 관계는 끊임없이 산중하는 임의적 결속을 나타냄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²⁵⁾, 이 개념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출발한다. 따라서 디자인에 있어서는 모든 텍스트는 그 자체로 완결된 닫힌 단일성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무수한 텍스트의 흡수이고 그에 의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텍스트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작용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에서 역설과 병치의 표현방식이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하는 형태적 구성어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태와 기능, 기호와 지시어, 공간과 행위, 구조와 의미 사이의 명확한 개념이 분열과 조화보다는 충돌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의 의미작용은 건축이라는 하나의 텍스트적 경계를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꾀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전략인 것이다.

4. 결론

하이브리드의 미학적 접근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하이브리드 현상을 초래한 상황과 그것의 관계성에 대해 인식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관념과 예술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었으며, 그것은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의 복합적인 코드의 사용과 그것의 탈코드화, 그리고 상호텍스트적인 의미작용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호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표현특성은 예술철학적 개념 - 송고/수용/재현 - 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변환과 아울러 의미변환을 가져왔다. 주로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표현방식은 형태적 왜곡과 변형, 그리고 이질적 요소들의 병치와 공간 구문법의 역설적 표현으로 인한 의미충돌들

야기시켜 자유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자유로운 표현양식을 드러내었다. 다시 말해 하이브리드 미학의 표현기법과 특성은 모순형용적이고 낯설은 표현기법과 아울러 인터페이스적인 표현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그것에 따른 디자인 특성은 이중적 의미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창조성에 기초가 된 열림의 미학적 형식은 예술의 부정성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표현기법과 특성은 결국 '해석'이라는 문제에 집중되며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히 확장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미학적 관점에서 모든 시대에는 저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개념을 초월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의 융합에서 생기는 간극(間隙)이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디자인에 대한 미학적 해석의 연구는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기법에서 그 열린 의미체계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근본적인 의도는 다원화되고 파편화된 이탈을 동조하는 하이브리드 디자인적 사유체계를 현대 실내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풍부한 의미생산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전문화되고 하이브리드의 대상이 되는 실내디자인을 대중문화의 생산적 공간에 위치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Jencks, Charles. Heteropolis, AD, 1993
2. Walker, John. A. Art in the Age of Mass Media, 매스미디어와 미술, 장선영 역, 시각과 언어, 1998
3. Lyotard, J. F.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문예출판사, 1993
4. Baudrillard, J. Simulacres et Simulation, 시뮬라시옹, 하태완 역, 민음사, 2001
5. Foucault, M. Les Mots et les choses, 말과 사물, 이광래 역, 1986
6. Adorno, T. W. Ästhetische Theorie, 미학이론, 홍승용 역, 문학과 지성사, 1993
7. Leitch, Vincent. B. The Constructive Criticism,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88
8. 김용석, 문화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푸른숲, 2000
9.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 건축, 시공문화사, 2003
10. 이진경, 철학과 굴뚝 청소부, 그린비, 2002
11. 진중권, 현대 미학 강의, 아트북스, 2003
12.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13. 김민수, 건축에서 재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4. 강규석, 가상공간에서의 미메시스 형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5. 안성찬, 송고의 미학 : 그 기원과 개념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16. 김은지·이정옥, 혼성 디자인의 의미구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 15권 2호, 통권55호, 2006
17. 정현, 경계의 미학-모호함으로 풀어보는 현대 미술, 프랑스학 연구, vol 21, 2001

<접수 : 2006. 12. 29>

24) Vincent B. Leitch, The Constructive Criticism, 해체비평이란 무엇인가, 권택영 역, 문예출판사, 1988, p.87

25) 크리스테바(J. Kristeva)가 최초로 정의한 이 개념에서 모든 텍스트는 그 자체로 완결된 닫힌 단일성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무수한 텍스트의 흡수이고 그에 의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텍스트와 수신자의 역동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메시지를 발신자 시점에서 작품의 코드화로 간주하기보다는 해석자의 인식전환에 따른 해석의 문제로 더욱 중요시된다.